



뭄바이에서
동방경제포럼

부라티아에
선도개발구역 조성

극동 비자절차 간소화
정책 대상국 목록

핵심주제

동방경제포럼 뉴스

2019년 6월24일 Gazeta.ru

제5회동방경제포럼참가자들, Costa Venezia 크루즈선숙박가능

다양한 등급의 2116 개 선실에 숙박이 가능하다. 14층으로 구성된 객실들은 5성급 호텔에 준하는 수준이며 리셉션과 뛰어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투숙객 외에 2019동방경제포럼 모든 참가자들이 크루즈선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포럼의 비공식 일정들이 크루즈선상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제5회 동방경제포럼 조직위는 대표단, 기자, 직원들을 위해 8500개의 호텔객실을 확보하였다.

<https://www.gazeta.ru/gazeta/adv/12438139.shtml>

2019년 6월24일 TASS

재정비한 블라디보스토크 요새 2019동방경제포럼 방문객들에게 공개

'블라디보스토크 요새' 박물관이 포스펠로프 요새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동방경제포럼 방문객들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블라디보스토크 요새를 기반으로 한 연방박물관 설립은 2018년 11월 푸틴 대통령이 승인하였다. 요새는 19세기말- 20세기 초에 건설된 독특한 방어구조물들로 구성되어있다.

<https://tass.ru/v-strane/6582798>

2019년 6월19일 Interfax

뭄바이에서 동방경제포럼 출장세션 진행

러시아 극동 내 인도 사업가들의 활동 가능성과 전망이 출장세션에서 논의되었다. 행사를 통해 극동연방만구 투자가능성을 소개하고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제도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광산업 목재가공, 농업 분야 협력도 논의되었다. 행사에 55개 기업 130명으로 구성된 인도 대표단이 참여하였다.

논의 결과는 2019 동방경제포럼 공식 일정에 반영될 전망이다.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news.asp?id=1039161>

2019년 6월17일 Interfax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한국 사업가들 2019 동방경제포럼으로 초대

러시아 부총리는 이석배 주러한국대사와의 면담에서 해당 발언을 하였다. 트루트네프 부총리에 의하면 작년 동방경제포럼을 방문한 한국 사절단은 330명 이상의 사업가들도 포함하였다. 전권대표는 2019 동방경제포럼에 더 많은 참가자들이 올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main.asp?id=1038460>

2019년 6월8일 TASS

자바이칼 지방에서 한국으로 생수 수출계약 2019 동방경제포럼에서 체결 예정

극동투자유치 및 수출진흥청은 동방경제포럼에서 한국 투자자들과 최대 5건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계약 중 2020년 착공이 계획된 생수공장 건설 건도 포함되어 있다. 프로젝트 투자규모는 1000~1500만 달러이다. 생산량은 연간 생수 5억 리터 기량으로 예상된다.

<https://tass.ru/ekonomika/6529668>

극동 국가정책

2019년 6월25일 Rossiskaya Gazeta

극동주민들, 연% 금리로 주택대출 신청가능

극동연방관구 내 '극동헥타르' 토지 취득자들과 다채널기정은 저금리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축분양 외에 주택건설 및 수리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트루트네프 부총리에 의하면 2035년 전망을 포함한 2025년까지의 극동발전 국가 프로그램 초안에도 고려되는 사안이다.

<https://rg.ru/2019/06/25/reg-dfo/iurij-trutnev-dalnevostochniki-smogut-poluchit-ipoteku-pod-dva-procenta.html>

2019년 6월20일 RIA News

극동 비자절차 간소화 정책 대상국 목록 확대

대만은 비자간소화 절차 혜택을 받는 19번째 국가가 되었다. 대만과의

경제통상교류, 인적 및 문화교류의 확대를 위해, 극동연방관구로의 추가 투자유치를 위해 비자 간소화 절차 제공 대상국 목록을 확대하였다고 러시아 정부 공식 문안에 언급되었다.

<https://ria.ru/20190620/1555723645.html>

2019년 6월 17일, TASS

사할린 연결 교량 및 항구 건설에 4330억루블 소요될 전망

러시아 공공회의소에서 진행된 러시아 극동개발부 공공협의체 회의에서 크루티코프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극동발전차관이 밝힌 내용이다. 사할린과 대륙을 연결하는 교량 건설 및 사할린과 홋카이도 섬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면 일본 항만들을 러시아 철도망과 북극항로와도 연결할 수 있게 된다.

<https://tass.ru/ekonomika/6557473>

극동경제

2019년 6월 17일, Kommersant

부랴티야에 선도개발구역 조성

메드네데프 총리가 '부랴티야 선도개발구역 조성 시행령에 서명하였다. 선도개발구역에 통관물류터미널과 양계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투자총액은 55억루블이다. 새 선도개발구역을 통해 약 9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028년까지 연방 및 지역 세금수입이 28억루블 이상이 될 전망이다.

<https://www.kommersant.ru/doc/4003986>

극동개발 신규정책: 성공사례

2019년 6월 7일, Rossiskaya Gazeta

사할린에 힐튼 호텔 들어설 전망

10층짜리 호텔은 총 면적 23600제곱미터로 사할린에서 가장 큰 호텔이 될 전망이다. 엘리트급 객실을 포함하여 209개의 객실,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레스토랑, 각종 행사를 위한 가변형 컨퍼런스 홀 2개도 갖춘다. 호텔 착공은 올해 7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완공은 2022년으로 계획되어 있다.

'고르니 보즈두흐' 선도개발구역 내 민간투자 유치로 통해 공사비를 충당한다. 프로젝트 규모는 20억 달러이다.

<https://rg.ru/2019/06/07/reg-dfo/na-sahaline-poiavitsia-gostinica-seti-hilton.html>